

1991. 신입생 여학우의 날 자료집



살아숨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땅을 위해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1991년 2월 19일

- 2 서시
- 4 격려사 "쉽없이 걷는 연세의 딸이 되길..."
- 5 여학우 여러분께 드립니다. "귀중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 6 나, 너 그리고 우리
 - 여러분의 대학생활과 총여학생회에 대하여
- 9 1 학기 일정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시간표"
- 10 연세여성 (만화)
- 11 주인된 여성 (만화)
- 12 신입생 여학우의 날 일정 "오늘 뭐해요?"
- 13 살아있는 날의 시작 "슬라이드에서 대체 무얼 보여주실랍니까?"
- 14 남은 이야기들
- 15 함께 쉬는 공간 "장산곶매 이야기"
- 16 동네방네
- 18 지도
- 19 사랑하는 아우에게
- 20 노래
- 23 잉태소개
- 24 메모란



우리가 배우고 싶었던 것은요...

최상희(고1)

"9년동안 너희는 학교에서 뭘 배웠니?"

- 우린 '경쟁'이란 것을 배웠어요

어른들은 '선의의 경쟁'이라며 그것을 항상 정당화시켰지만
우린 항상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9년동안 너희는 학교에서 뭘 배웠니?"

- 우린 '지키기'란 것을 배웠어요

어른들은 '질서의 아름다움'이라며 그것을 항상 정당화시켰지만
우린 항상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고 싶었어요

"9년동안 너희는 학교에서 뭘 배웠니?"

- 우린 '권위와 복종'이란 걸 배웠어요

어른들은 '교풍확립'이라며 그것을 항상 정당화시켰지만
우린 항상 권위와 복종이 없는 사람들의 만남이고 싶었어요

"9년동안 너희는 학교에서 뭘 배웠니?"

- 우린 '시험'이란 것을 배웠어요

어른들은 '가장 공평한 평가방법'이라며 그것을 항상 정당화시켰지만
우린 항상 '시험'이라는 괴물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9년동안 너희는 학교에서 뭘 배우고 싶었니?"

- 우린 '더불어살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우린 항상 같이 나가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불가능한 일이라 했기에

우린 항상 그런 소망을 잊으며 살았어요

"9년동안 너희는 학교에서 뭘 배우고 싶었니?"

- 우린 '사랑'을 배우고 싶었어요

서로 눈치보지 않고 아껴주기를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대학은 우리를 서로 아끼게 하지 않았기에

우린 항상 그런 바람을 잊으며 살았어요

"9년동안 너희는 학교에서 뭘 배우고 싶었니?"

- 우린 '인간되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살아가는데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성적표란 종이 딱지 숫자 몇개가 어른들은

중요하다고 말했기에

우린 항상 그런 생각을 잊으며 살았어요

"9년동안 너희는 학교에서 뭘 배우고 싶었니?"

- 우린 '이해하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서로 이해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희망했거든요

그렇지만 '나만 생각하기'에 자꾸 길들여져서

우린 항상 그런 희망을 잊으며 살았어요

"그래,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이젠 잊지 말아야지요

서로서로가 중요한 걸 잊지 않는다면

성적표란 종이딱지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항상 옳고 그름을 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쉽 없이 걷는 연세의 딸이되길

여학생 처장 손 경희

현시기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또한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도 가히 중요한 위치라 하겠다. 이러한 위치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곳이라도 소홀하게 될 염려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소홀함들은 각 개인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보완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사회적인 제 제도들이 불충분한 것에도 문제가 있겠다.

여성들은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애써야 할 것이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보장은 여성 개인 개인, 혹은 여성집단들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하여 쟁취되어지는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들이 굳굳하게 자리매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함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 도처에는 여성 비하의식들이 무분별하게 흩뿌려져 있고,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의식은 둔감해져 있다. 여성에 관한 한국사회의 통념이 불평등 구조로 편제되어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비하의식들을 개조시키고 여성들의 의식수준 함양을 위해서는 여성들만의 공동체적인 장으로서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행히 우리 대학의 학생자치활동의 경우, 총학생회와는 별도 조직인 총여학생회가 조직되어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알찬 내용과 돋보이는 기획물들은 그만큼 총여학생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결실이라고 할 것이다.

항상 멈추지 않는 자, 쉽 없이 걷는 연세의 딸이 되기를 염원한다.



귀중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백양로를 걷고 있는 새빛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여·성·해·방이란 말이 몹시 생소하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쉬이 실감하지 못하는 말, 혹은 실감함에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말이라 그런가 봅니다. 연세 뜰에서 생활한 삼년을 생각합니다. 크나큰 기대를 가졌던 대학교정은 진리의 상아탑만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의 모임, 그러나 같은 출발선에 섰었던 그때의 남학우들과 지금의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지 돌아봅니다. 공공연히 자행되는 차별이라는 것, 혹은 그것을 체념하거나 의식하지 못한채 살아가는 반쪽의 삶, 이땅의 여성들은 여성이기에 받는 이중 삼중의 모순된 억압을 "인내"의 미덕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왜곡된 여성관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 틀안으로 끼워넣으며 매일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큰 꿈을 품고 새 삶을 시작하는 빛들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힘차게 모든 일의 주인으로 나설시다.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과 맞서, 인간으로서의 자주적 모습으로 승리해가길 바랍니다. 또한 혼자의 자족적 발버둥이 아닌 옆의 빛들과 두손 굳게 맞잡을 때 진정한 승리를 받아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4대 총여학생회는

귀한 여러분의 소중한 버팀대 역할을 해내고자 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에게 가장 살기 힘든 시기가 겨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함께라면 그 긴 겨울도 지루하지 않고 따뜻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의, 연세의 자랑인 신입생 여학우 빛들! 우리, 머리로는 냉철히 생각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아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여성으로 살아갑시다. 이 땅의 여성, 이 시대의 여성이라는 공통점만으로도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건강하고 당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새 빛들에 대한, 이만 연세인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왜곡되고 짓이겨지더라도 우리의 가슴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감히 이런 우리의 사랑을, "마르지 않을 대하"라 부르고 싶습니다. "깎이지 않을 준령"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제4대 총여학생회는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믿음으로 귀중한 여러분과 늘 함께 하는 학생회를 일구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되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4대 총여학생회 일꾼들 드림

나, 너 그리고 우리

- 여러분의 대학생활과 총여학생회에 대하여 -

따뜻한 격려와 기대를 한몸에 안고 대학문을 들어서면 모든 것이 새로와 보입니다. 가슴부푼 미래의 꿈들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 것만 같고,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다는 생각에 어깨를 으쓱해 보게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꿈에도 그리던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진리의 상아탑'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대학의 문턱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대학생활을 마감한 뒤 많은 사람들이 대학4년을 되돌아보면 특별히 기억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모두 할만큼 해 본 것 같은데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주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학생활을 되돌아보면 항상 흐뭇한 감동에 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에 들어와서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말하며, 그것은 대학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안고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오늘 대학에 발을 들여놓기까지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만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뒤로 제쳐두고 오직 입시위주의 공부에만 여념이 없게 되지요. 또한 입시경쟁에 얽매이다 보니 자기만 아무일 없으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고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은 둘러보지도 않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입시지옥에서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개인을 고립시키고 나약하게 만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서구의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오직 '대학'에 대한 일념 하나로 청소년 시절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이란 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근사하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더 이상의 불평등이나 부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사랑과 낭만이 깃든 신천지로 말입니다. 사실 대학은 다른 어떤 장에서보다 자유롭게, 진지하게 또한 풍부하게 자신의 생활을 채워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대학생활을 거치면서 땀흘려 학문을 탐구하고, 소리높여 진리를 외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화를 통해 함께 하는 삶을 배워나갑니다. 이전의 '서킴'과 '당함'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꾸려나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자

신의 힘으로 개척해가려는 자세입니다.

이제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간섭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가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로 이끌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올바른 삶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생활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었을 때에는 조금만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생활의 하나하나가 항상 새롭게 깨어나는 힘찬 과정일 수 있으려면 자신의 삶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갖고 용기있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대학의 모습은 앞에서 말한 긍정적인 면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의 교육은 개인적인 출세의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엘리트)이라는 이름하에 대학인들의 개인주의는 강화되어 나가고 대학은 단지 실리추구의 장으로 변모해 갑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맹목적인 열망이 아니라 개인의 안락한 생활의 보장이라는 뚜렷한 명분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혼자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집단을 이루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집단적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공동체적인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앞세우면서 살아갈 때만 사람다울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마찬가지로 대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삶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학생회란 조직이 있습니다. 학생회란 학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함께 논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학우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려는 조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올바른 삶, 바람직한 삶을 우리 힘으로 꾸려나가게 됩니다. 학생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일은 모두가 그 구성원들의 실정과 조건을 고려하여 준비되고 진행되어 집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아온 학생회처럼 선생님의 말씀 전달하고 자율학습시 조용히 시키는 일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학생회는 그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선배들의 피어린 노력을 통해 정착된 것입니다. 학생회는 우리들 모두의 대변자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바, 우리들이 지향하는 바가 모두 학생회로 집중되며 그 해결방도의 모색과 실질적인 해결을 해 나가는 것 또한 학생회이니깐요.

‘여학생회’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 눈으로 확인하시겠지만 대다수의 여대생은 의존성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집단성, 규율성이 부족하고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입니다. 또한 취업문제와 같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실질적인 문제에서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요한 화제거리도 연애나 결혼, TV, 영화이야기 등이며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과 이해의 정도가 별로 높지 못합니다.

여학생회는 이러한 여학생들과 함께 생활상에서 느끼는 문제부터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조직입니다. 어떤 여학생을 붙잡고 물어보아도 여성문제를 낮은 수준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학생들이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리고 현실에 적응해 살아가게 됩니다. 더구나 여대생의 경우에는 다른 여성들에 비하여 특권의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성들은 이미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사회적 통념하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많은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부터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부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뉘etur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문제점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힘으로 말입니다. 여학생회는 바로 여학생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말하자면 여학생들의 특수한 요구를 잘 파악하여 함께

해 나갈 방도를 찾아내며 이후에 부딪히게 될 여성문제 또한 집단적인 힘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지요. 따라서 여학생회의 주인은 바로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이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여대생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직 우리 학교의 총여학생회는 명실상부한 여학생들의 조직, 즉 여학생 스스로가 주인으로 나서는 여학생들의 대표조직이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여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바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총여학생회는 사소한 생활의 문제부터 여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생활속에서 서로의 고민과 갈등, 문제의식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비판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며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 4년의 생활을 하루하루 새롭게 깨어나고 뜻있는 감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과 대학인으로서의 자신의 참된 위치를 파악할 때만 가능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싸워야 하며 나태한 생활습관도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자신있게 대학생활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함을 잊지 마십시오. 보람찬 대학생활의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이 만들어갈 시간표 ●●●

2 월 신입생 여학우의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너와 나, 이제 우리가 되어 푸른 연세를 가꾸어 나갑시다.

3 월 해오름

총여학생회의 인삿날입니다. 겨우내 준비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날이며,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의 방들이 있는 날이에요.

4 월 여성 영화제

여러분이 선정한 영화를 보는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상영되는 영화제에 많이 오세요.
남학우도 환영해요.
정기 교양강좌
학문적 영역이 아닌 실생활에 이용되는 교양학 강좌입니다.
연애학, 결혼학 등 여러분이 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5 월 대동제

오월 들쭉주는 대동제 기간입니다. 이만 연세가 하나되는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비워놓지 마세요.
그 푸른 오월 하늘 아래에 여학우들만의 체육행사랑 하숙집 아줌마, 빵집 아줌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는 어머니와의 한마당이 준비되어 있어요.

7 월 여름 농촌 활동

거창, 함양, 산청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활은 우리에게 땅을 딛고 바로설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여학우 큰지리

한학기의 일들을 총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며칠간 함께 뒹굴며 서로를 속속들이 파헤칩시다.



연세여성

91

나약함...

나는
꽃병의
꽃으로 만족해
주



소극성...

계정애가 노는게 꼭
사내같아, 좀
암전히좀 놀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아! 현대여성이라면
슈퍼우먼이
되어야지

남성에게 의존하기만을
강요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길
요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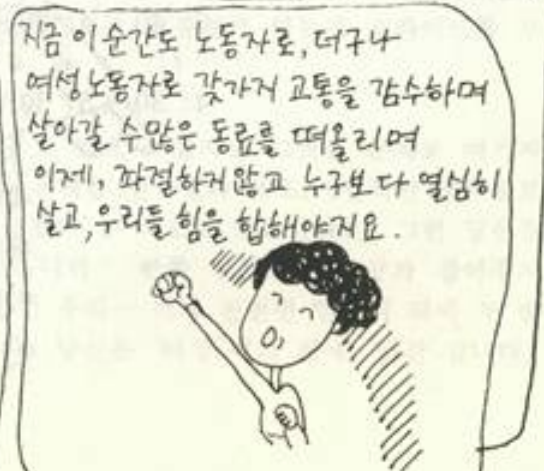
허리가
날씬하고
가슴과
엉덩이는
커야하고

모든 억압의 굴레를 오션 여학우가
하나되어 깰. 어. 내. 자.



주인된 여성

어느 여성노동자 이야기



“오늘 뭐해요?”

- 1: 30 - 2: 00 “제 이름 아세요?” 우리모두
- 2: 00 - 2: 10 개회선언 “편짜잔~” 사회자
- 2: 10 - 2: 20 총여학생회장 인사 김신영(교육3)
- 2: 20 - 2: 30 총학생회의 축하 허치림 (기계공학3)
- 2: 30 - 3: 00 슬라이드 “살아있는 날의 시작”
- 3: 00 - 3: 40 강연 “성차별 교육과 여대생” 김남선 님(전교조 서울지부장)
- 3: 40 - 4: 30 총여학생회 및 단위 여학생회 소개 “씩씩한 우리 일꾼”
- 4: 30 - 5: 30 대동제 “하나된 목소리를 위해”

새로 태어나려는 당신의 첫걸음을 축하합니다.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그러나 잠긴 목소리로 내뿜던 말들.
 이젠 하나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자구요.
 악~

“슬라이드에서 대체 무얼 보여 주실랍니까?”

- 슬라이드의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하여 -

슬라이드라...

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거지?

선배언니들 애길 얼핏 들어보니 뭐, 여대생이 생활 속에서 소외받고 소극적으로 생활하는데, 이걸 문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내용이란단다.

소외? 소극?

대체 우리가 대학까지 와서 무엇때문에 소외되고 소극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지? 열심히 미팅하고 공부 많이 해서 **top**도 해보고 그럴텐데 그게 왜 '소외'고 '소극'이라는 거야? 그런데 대학엔 다니는 우리 오빠보니까 술먹고 새벽에 오거나 아예 안들어오는 날도 많더라. 와 - 그럼 난 집나가는 소릴 듣게 될거야. 그러구 술먹고 취하면 집에 간신히 가더라도 주정부리는 거 아냐? 아빠가 성 갈라고 할거야...

우리 오빠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예쁘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도 예쁜 남자친구 만나야지!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할거야. 가자고 하는데 가고... 끼끼끼 아이구 행복해. 당장 화장법을 배워야지.

난 대학나오면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싶다. 비록 얼마나 오빠가 쓸데없이 꿈만 크다구, 시집이나 가라구 하지만.

아냐, 취직해서 한 2년 있다가 시집갈까? 여대생취업률이 엄청 낮던데... 에구 모르겠다. 저번에 합격통지서 받은 날, 찻집에서 선배가 이런 내말을 듣더니 씩씩한 표정

을 지었던 게 생각난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날까? 그 언니 얼굴이 참 힘빠져있었는데.

그 언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길들여왔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보다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했다. 주체적... 주체적인 것이란 무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소극적이고 소외당하고 있는 거 같다.

술자리에서의 소외, 취업에서의 소외, ... 그리고 난 내 생각을 말하기 보단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던 때가 더 많았지.

어이구 복잡해.

모르겠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린 소외당하고 의존적으로, 소극적으로 생활하게 되는지 슬라이드를 보면 알 수 있겠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당신, 설사 문제를 인식했다 해도 개인적인 능력으로 해소하려거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도피하려는, 그런 당신을 알아채신 적은 없습니까? 반쪽 인간으로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설 수 없었던 우리...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어 두 발로堂堂히 서봅시다. 당신은 '여성'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이제야 봄날을 보아도 일무렵에야 새소리가 들린다”
오늘 뭐예요

—이제야 봄날을 보아도 일무렵에야 새소리가 들린다—

남
은

이야
기
들
:



장산꽃매 이야기



옛날 황해도 서쪽 바다끝에 장산꽃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은 십년 가물에도 고떡않는 참으로 좋은 고장(낙원)이었다. 그것은 그곳의 유명한 매, 장수매의 정기와, 또 그 정기와 맞떨어진 백성들의 의기 때문이었다.

이 장수매는 주변의 약한 동물들은 괴롭히지 않고 일년에 딱 두번 대륙으로 사냥을 가는데, 그 전날밤 장수매는 혼신을 건 싸움을 하기 위해 자기 등지를 부시는 부리질을 하고 그 소리가 딱 — 딱— 나기 시작하면 그 마을에는 행운이 찾아왔다. 농사는 풍년이 들고, 바다에는 조기매가 몰려오고, 장기못간 이는 장가를 가고, 애를 못낳던 이는 애를 낳고...

그러던 어느날 대륙의 침략자 수리매가 쳐들어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때, 장수매가 날아 올라,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덩치가 큰, 수리 우두머리와 싸움이 붙었다. 긴 싸움끝에 장수매는 수리의 날개 밑으로 파고 들오 날개죽지를 쏴아 떨어뜨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외치는 기쁨의 함성이 새 사라지기도 전에, 물건너온 침략자 먹구렁이가 또 쳐들어왔다. 수백발이 넘는 먹구렁이와의 싸움에서 장수매는 먹구렁이의 머리를 쏴아 드디어 먹구렁이를 무찔렀고, 어느덧 장산꽃 마루엔 (승리를 알리는) 북소리가 요란했다. 매는 침략자를 무찌르기 위해 북소리따라 캄캄한 밤하늘을 쏴아 길을 밝히고, 전령은 나는듯 말을 달려 이 소식을 전하고, 봉우리마다 봉화가 이어붙고, 이물때는 저넓은 들로 내어달린다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서사시적 옛이야기이다.



백양로에 늘어선 많은 건물들, 그속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학 생 회 관

증축공사로 공간 확장중이며 직영문제로 문구점 운영이 조금 파격적이지만, 여러분의 이해 요구를 거의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곳입니다. 지하에는 밥, 국, 국수류의 식단을 갖춘 식당(가격은 450원~600원)과 스넥코너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교내 이발관과 구두 수선소, 은행, 우체국, 문구잡화점, 그리고 직영서점인 '슬기샘'이 있습니다.

1층에는 로비에 사진관, 안경점, 여행사 및 과자와 음료수를 판매하는 '하늘샘', 스넥을 준비하고 있는 '하얀샘'이 있습니다. 하얀샘이나 하늘샘을 통과하시면 천막식당에 가실 수 있는데 가격은 천원정도 입니다.

2층에는 학생중이랑 동문회 포스터에 도장을 찍어주는 학생처가 있습니다. 학생증을 가져가면 치료도 받고 약도 탈 수 있는 보건소도 있어요. 그리고, 장학복지과에서는 교내, 외의 각종 아르바이트나 취업정보에 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처가 있는 곳도 여기예요.

3층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 방이 있습니다. 또 그옆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학생휴게실이 있구요. 많은 동아리와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매점인 '푸른샘', 그리고 이만연세의 구심, 총학생회실도 이곳에 있습니다.

4층, 이곳이 끝입니다.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무악극장과 오락실이 있습니다. 오락실에는 탁구대, 바둑판, 장기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라도 들르세요, 환영합니다.

중 · 앙 · 도 · 서 · 관

대출증을 어서 만드세요. 대출증은 학생증, 등록금 영수증, 사진을 가져가야 만들어 준대요. 분실사고가 가끔 일어나니까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땐 지갑 같은 것은 놓아두지 마세요. 2층에 가방보관소와 복사실이 있어요. 층마다 있는 참고 열람실은 개가식인 대신 가방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과 5층 직통이고, 지하엔 여학생 휴게실과 매점인 '숯을샘', 각종 테이프 및 비디오가 비치된 소리도서실이 있습니다. 1층로비엔 각종 신문들이 매일 게시됩니다. 그외 자세한 것은 연세대학교 요람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백주년 기념관엔 콘서트 및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고, 여학생휴게실인 논지당이 본관 옆에 있습니다. 청경관은 문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구요. 학생회관 1층, 종합관 3층, 이과대 1층의 여학생화장실엔 위생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 각 단대를 살펴볼까요.

— 교문바로 앞의 건물인 공대는, 화장실을 찾는 여학우들이 항상 헤매는 곳입니다. 화장실은 지하와 3층, 5층 중앙에 하나씩 있어요.

또 PC실이 2층 중앙에 있습니다.

— 체육관에서는 농구공, 배구공, 축구공등을 빌려준답니다. 그 뒤의 체교관에는 실내수영장과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 이과대 지하에는 제 3대 이과대 여학생회실이 있습니다. 동아리와 단대학생회실두요. 또한 1층과 지하의 전산실, 1층117호실 앞의 아담한 여학생휴게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상대는 1층 입구쪽에 여학생휴게실이, 지하에는 PC룸이 있어요.

— 봄이면 봄눈같은 벚꽃사이를 헤매고 다녀야 하는 법대는 광복관이라 불립니다. 2층에 여학생 휴게실, 고시실 '명모현'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체계를 가진 여학생회가 생긴 곳이기도 해요.

— 끌고다 언덕이라 불리는 산꼭대기에 종합관과 인문관이 있어요. 여학우 천삼백명으로 남녀의 성비가 1:1에 가까운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에도 지하엔 PC실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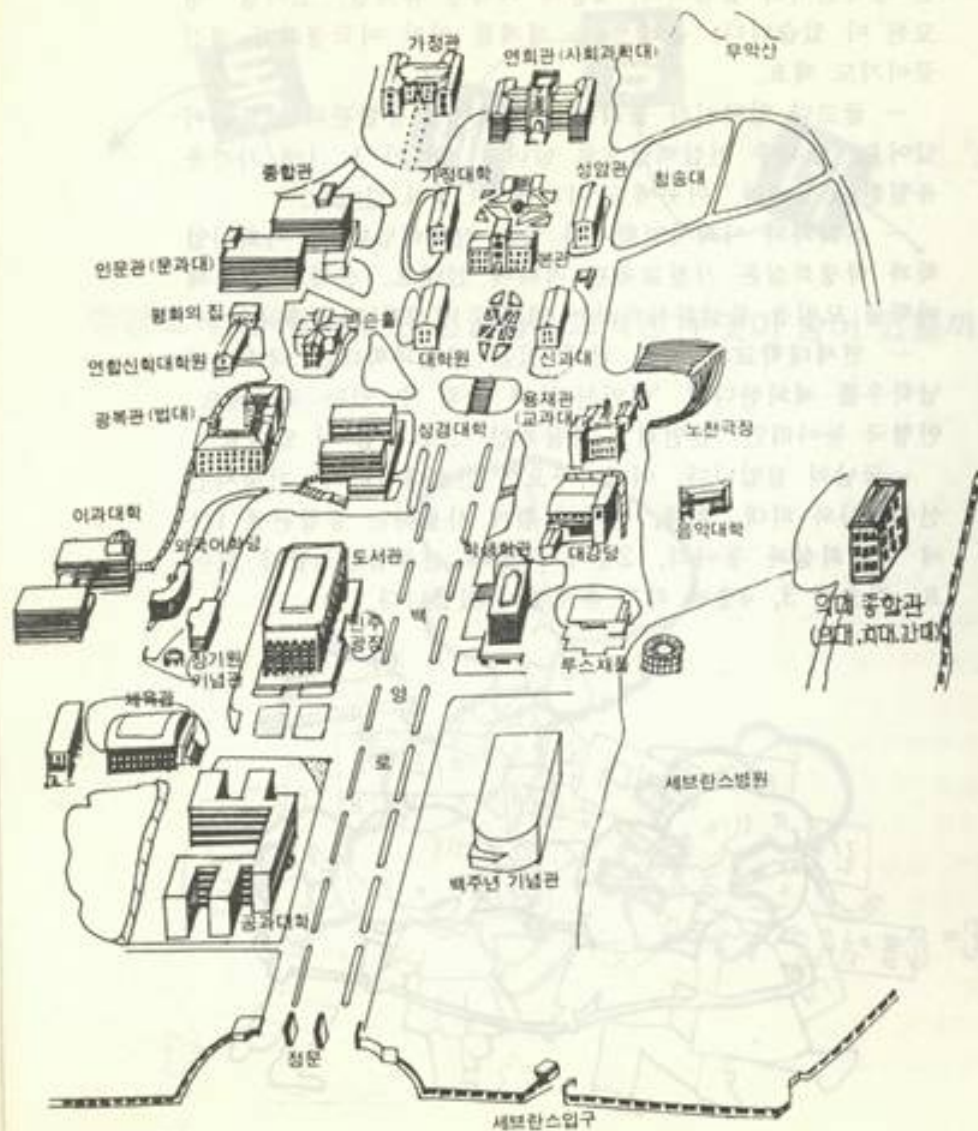
— 신학과와 사회사업학과가 있는 신과대입니다. 사회사업학과 학생회실은 가정교육관 지하에 있대요. 신학과는 올해 여학생 모임을 활성화시키려는 연세의 정신적 지주라나요.

— 연세대학교의 제일 끝에 있는 생활과학대는 극소수의 남학우를 제외한다면 '여인천하'라 불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인형극 동아리인 '연인회', 풍물패인 '소리살림'이 있어요.

— 금남의 집입니다. 어디냐구요? 간호대입니다. 기숙사인 선우학사와 의대, 치대, 간대가 함께 사용하는 종합관엔 1층에 학생회실과 동아리, 2층에 식당과 신용협동조합이 있어요. 간호대 3, 4층엔 각각 휴게실이 있답니다.



백양로



사랑하는 아무에게



대학 생활에서 목표는 삼았던 것이
많이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에 올라와서 '자기'를 '바라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으로 '자기' 변화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

축하합니다!
기쁘요!

설레이는 마음과
따스한 손길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큰 거룩하게서 불기운을
느껴 다가오는 데리본은
너와 다음입니다

멋진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선배들과 같이 '행'을 돌도록 합시다!

- 응룡 '90 -

- 덕은 '88 텐이 -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 화공 88



대학 생활의 행복은 동아리에 있습니다

- Kusa '89 매남

대학이 있고 많이 고민하고
많은 것이 많아 아파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행'을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신현 '89 -

아담의 감미로운
편지가 아니라
우리도 두 남매 양에
할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 사사 '88 마에 -

좋은 대학생활,
살아있는 대학생활,
살만한 대학생활
되십시오.

- 간호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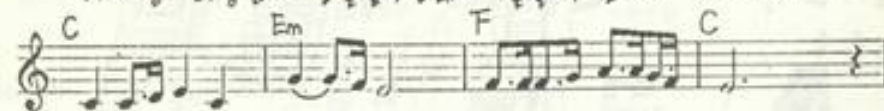
딸들이 일어나라



1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일어나서
2.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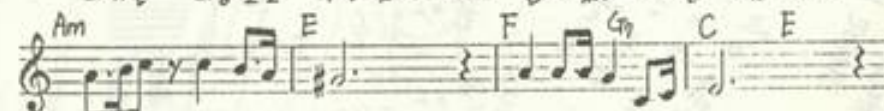
깨 깨 폭풍 불을 불- 뱉듯 잘라 버리고 딸들이 일어나 라 깨어라 이 땅
러 이상- 버림 꿈에 흔들릴 수 없다 딸들이 일어나 라 깨어라



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럽 딸로 태어 나



사람도 행-복도 과해 갖게 버리고 평야 앞뒤 그 시절 몇 몇 해
고귀한 모성 보호 다 빼앗겨 버리고 참아 왔던 그 시절 몇 몇 해



나 가자 깨 부수 자 성 차별 노동착취



종치자 투쟁이 다 - - 여성해방 노동 해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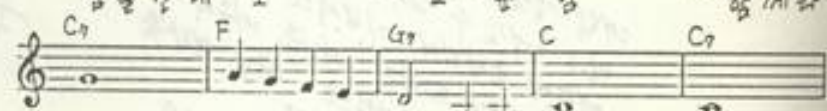
사노라면



1 사 노 라 면 - 언젠가는 - 불-은
2. 네 가 세 는 - 판 자 집 에 - 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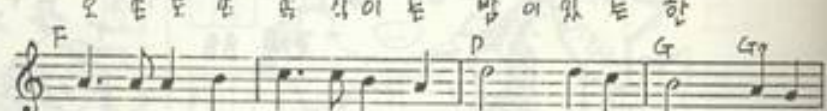
날 도 오 겠 지 - 흐 린 날 도 - 날 이 새
꿈 을 꾸 대 도 - 고-운 밤 - 함께 라



면 해 가 뜨 지 않 더-나 -
면 쉼 기 올 지 않 더-나 -



세 파 길 게 길 가는 게 한 멀 친 인 데
오 손 도 든 속 삭 이 는 밤 이 왔 는 한



재 재 하 게 줄 지 말 고 가 승 을 짝 퍼 라
한 승 을 랑 쉬 지 말 고 가 승 을 짝 퍼 라



내 월은 례 가 톨 다 내 월은 해 가 톨 다

직너에게

문 별관 작사
박 문옥 작곡

Am E7 Am A7 Dm E7

이별 이 너무 길 - - 다 - 슬픔 이 너무 길 - - 다 - 선 채

Dm G7 C B7 E7

로 기 빠리 기 - - 연 - 세칠 이 너무 길 다 말라

Am E7 Am A7 Dm E7

불 온은 하 - - 수 - 눈 - 물 모옥 이 - - 고 - 가 습

Dm G7 C E7 Am

과 가 습 - 에 노 - 뜻 들을 놓 아 그대

F Am G7 C E7

손 깃 하는 연 - 인 - 아 온 허수 건 - 니 -

Dm Am F B7 E7

오작 고 없어도 노릇 들 이 없어도 가슴 덥고 다 시 만 날 우 - 리 물 연인

Am E7 Am A7 Dm F E7

아 연 인 - 아 이별 은 끝나야 한 - - 다 - 슬픔

Dm G7 C E7 Am

은 끝나야 한 - - 다 - 우 리 는 만나야 한 - 다 -

이 작은 물방울 모이고 모여

Moderato (♩ = 120)

너 나 달려 가 자 세 배 두 삼으로 이리

먼 덕산모퉁이 물 아 밑 판 을 치 나 니

자 나 달려 가 자 세 한 타 안으로 세

한 물개처럼 제 치고 거칠 파 도 넘 어 이

제 연날리여 새 함 새 함 한 모아 띄고 파 나 띄고

제 연가슴에 새 피의 화 화 이 띄고 파 나 띄고

자 열망진코 오 타 가 자 이 흥인 바람 내 배우

지 부른 물결 제 피가 자 이 거대한 파 내 안쪽

산 한 타 산 두 타 관산 물로 이

이 제 제 이 니 눈 코 눈구 제 남도

이 작 은 물 방 울 모 이 그로 제 계울

로 속 로 로 마 밑 내 파 나 뜻 이한

물 거 제 제 산 새 - 이 띄고 파

물 거 제 제 물 새 - 기 띄고 파

친구

1. 감 포풍바닷 가에 비가 내리 명 어
2. 눈 눈 에보이 눈 아 많은모습 들 그

가 가하 눈이 고 어 다 가물 의 오 그
모 푸전 정 이 라 - 무 재할 하 면 이

조 운바 다 손 에 고 은 리장 가 명 무
느 노구 하 나 가 - 할 로일 이 나 아

잊 어상 것 이 고 무 잊 이국 잊 소
니 라고 말 할 사 랑 누 가있 겠 소

술 어래 오 눈 친구 의 모 습

날 리는 꽃 은 수 에 어 린거 러 오 지

말 리를 리 는 친구 의 음 상

리 트기 하 바 퀴 가 마 담하 러 나

가 물

1. 감 수 - 지 나 - 서 산 굴 로 - 립 어 틀 어 가
2. 모 령 - 가 물 - 에 눈 도 밭도 다 줄 라 지고
3. 이 가 물 연 재나 끝 나 두 손 강 - 마 또 지 러 나

잊 구 비 념 으 - 나 땀 은 꽃 - 이 - 열 - 린 다
재 마 른 눈 표랑 에 물 귀 물 - 만 - 우 어 건 다
해아 해아 모퉁 한들 어 작은 굴 - 을 - 모 르 난 다

금 실 에 피 음 - 꽃 어 저 아 - 리 도 고 오 나
금 굴 - 대 나 로 야 어 저 아 - 리 도 국 있 나
길 길 - 길 등 - 야 무 심 한 - 야 길 등 야

공 갈 야 찬 바람 은 갑 갈 굴 - 을 - 모 르 난 다
꽃 길 - 추 녀 - 연 이 저 마 - 지 - 말 라 버렸 나
홍 장 - 홍 장 - 다 설 등 에 - 겨워 흥 - 걸 다

에 해 야 일 라 리 야 일 라 리 난 - 다 - 에 해 야

명 념 지 게 - 에 국 일 등 - 으 - 나 는 강 다

잉태소개



좁고 긴 거울을 뒤척이는 여성이여,
그대 연살이 터져 여성해방이 빛날때
더이상 거짓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을,
매도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잉태」를 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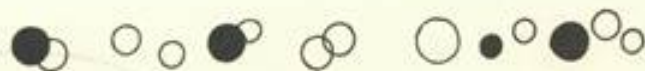
「잉태」는 사회에서 학내에서 여러분이 부딪치는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고민의 산물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부족한 4호를 더 풍부한 5호로 만들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장소 :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 내 「잉태」편집위원회

대상 : 91 (90) 여 · 남학우

1차모집기간 : 2월19일~3월13일



Memo

한글은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은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은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을 쓰는 방법과

한글

